

북한 기도회

2024년 12월



1. 트럼프 재선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관련하여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2기에도 파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핵 폐기 대신 군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우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사용되는 등 러우 전쟁의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1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각종 미사일 등 북한제 무기들이 러우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3. 동아시아 정세와 해외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드 사태 당시 다수의 선교사가 추방당했던 일 등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할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중관계와 한러관계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과 현장 사역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백 모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이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북한 지하교회 박해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 외에도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0여명 이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 지 4천일이 넘었고,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2014년~),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씨 (2016년~),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억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북한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단독 초상회장 (뱃지)를 관리들이 착용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와 동등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지칭하던 용어 '태양'도 이제는 김정은을 수식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상화가 강화될 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행태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외화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북한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대응을 명분으로 시장 경제 대신 국가 배급과 국영상점 중심 경제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민생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여름 대규모 수해까지 덮쳐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이 정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생 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극심한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을 통해 제 3국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사역이 지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 여러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최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현장에서 사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명목으로 해외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행보가 멈춰지도록, 그리고 탈북 여성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현장사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 분별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양육 받고 있는 탈북 여성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